

아픈 잇몸 참다가 치아 잃는다 '치주 농양'



치주 농양은 구강이 세균에 감염되어 치주 조직에 화농성 염증이 생긴 상태이다. 급성과 만성 모두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지만, 주로 국소적인 부위에 급성 박테리아 감염으로 발생한다.

진 곳에 박테리아가 침입하여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치아 뿌리를 따라 농(고름)이 형성된다. 치주 농양의 증상은 농양이 생긴 부위가 빨갛게 부어올라 있고 잇몸이 두근거리고 퍼지는 듯한 느낌이 있으며 만지면 심한

통증이 있다. 치아가 흔들리고 잇몸이 둥글게 부풀어 오르며 손으로 누르면 잇몸과 치아 사이로 고름이 나온다. 합병증으로 림프염, 발열, 백혈구증, 쇠약 등과 같은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치주 농양 증상이 있을 때 때때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염증이 계속 퍼지고 치조골(잇몸뼈)이 소실되어 치아가 흔들리게 되며 결국 치아를 잃게 된다. 치주 농양의 치료는 고름과 원인이 되는 치석 등을 제거한 후 폐쇄성 있게 항생제를 투여하며, 치조골 소실로 인해 치아를 상실했을 경우에는 치조골 이식술을 받은 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야 한다.

◆ 치주 농양 등 염증성 잇몸질환, 치조골 소실 원인

치조골은 치아를 받치는 뿌리의 역할을 하는 만큼 치조골 건강은 성공적인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치주 농양을 비롯한 염증성 잇몸 질환으로 인해 손상되고 양이 줄어든 치조골의 복원에 사용되는 치조골 이식재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대표적인 치조골 이식재인 대용 재질의 '노보시스'는 손상된 치조골의 빠른 복원을 통해 임플란트가 보다 짧은 시간 안에 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어 치료에 드는 시간을 크게 줄여 주는 제품이다. 유전자 재조합 뼈 형성 단백질인 BMP-2와 합성골의 골이식용 복합재료를 골전도성은 물론 골유

도성을 가져 난치성 임플란트 시술에 획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 치과대학 등 전국 6개 의료기관에서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 노보시스를 이식했을 때 상악동 거상술의 치유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되었으며 대조군(Bovine bone)에 비해 약 2배 이상 우월한 신생골 형성 유도효과를 나타낸 바 있다.

◆ 예방 위해서는 치석·치태 예방 필수

치주 농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칫솔질을 제대로 해 치태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의 안쪽과 바깥 쪽 면은 물론 설태에 끼기 쉬운 많은 혀까지 꼼꼼히 닦아야 한다.

칫솔질로 치태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면 치태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고 치아에 달라붙어 치석이 형성된다. 이미 형성된 치석은 칫솔질로는 제거가 안 되므로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아야 한다. 특히 칫솔질만으로는 모든 치태를 제거할 수 없는 만큼 칫솔질과 함께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해야 치태를 없앨 수 있다.

/박혜선

정상체중 여중고생 36% "난 똥똥이"



체중이 정상 수준인 여자 중고생 10명 중 4명은 스스로 똥똥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의 '2012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 따르면 정상 체중인 여학생 중 35.6%가 본인이 살이 찐 상태라고 생각했다. 정상 체중인 남학생은 22.2%만이 살이 찐다고 생각해 여학생에 비해 13.4%포인트 낮았다.

조사 결과, 전국 중고생 7만 2229명 중 80.7%는 정상 체

중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정상 체중 비율은 각각 79.6%, 82.1%로 여학생이 조금 더 높았다. 조사 대상 여자 중고생 중 43.5%가 최근 1개월간 살을 빼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체중을 줄이려고 하는 여학생 5명 중 1명은 의사의 처방 없이 살 빼는 약이나 설사약, 이뇨제 등을 먹거나 단식, 한 가지 음식만 먹는 다이어트법 등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드름 피부, 세안할 때 뽀뽀 문지르는 게 좋을까?



여드름이 났을 때 그 부위를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 뽀뽀 문지르는 습관이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여드름

을 악화시킬 수 있다.

힘을 주어 씻는 세안습관은 여드름만 더욱 자극할 뿐, 여드름 증상 호전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오히려 약간 미끈거리는 느낌이 남아있는 것이 피부보호를 위해서는 더 좋다. 미지근한 물에 살살 세안하고 세안 후 물기를 없앨 때에도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눌러 닦아야 한다.

또, 운동할 때 흘리는 땀을 즉시 닦아내지 않아도 여드름이 악화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면 땀을 통해 목을 각질과 노폐물이 함께 배출되므로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지만,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피부에 좋은 유수분이 함께 빠져나가 피부가 건조해지기 쉽다. 땀을 흘린 뒤 제때 씻지 않으면 노폐물이 모공을 막는다.

광고·구독문의 전화
02-2637-0814

불임의 원인은 모두 여성? 남성도 3분의 1 차지해

불임일 경우 '여성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불임의 원인은 여성이 3분의 1, 남성이 3분의 1,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가 3분의 1 정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남성 불임의 원인을 알아봤다.



건강한 정자가 생성되지 않을 때 남성 불임의 90%가 정계정맥류(고환으로부터 올라오는 정맥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 음낭 안에서 꼬부라지고 뒤틀려 있는 상태)나 호르몬 불균형 등으로 인해 건강한 정자가 생성되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다. 특히 정계정맥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뇌에서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하라는 신호를 잘 내리지 못하거나, 뇌에 종양이나 외상이 있는 경우도 호르몬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

정자가 정상적으로 이동하지 못할 때 전체 불임의 약 6%를 차지한다.

출생 때부터 정자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상이 있거나 후천적으로 정자 이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을 때도 남성 불임을 초래한다.

특히 정계정맥류가 있으면 정자 생성이 잘 안되는 것은 물론, 정자의 이동도 방해받는다. 또한 성 전과 질환, 즉 성병 때문에

정관이 부분적으로 막힌 경우에도 사정 시 정자가 이동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 이때는 사정을 해도 노획했거나 이미

죽은 정자가 나온다.

사정에 문제가 있을 때 정자가 효과적으로 나오지 못해 불임이 되는 경우로, 남성 불임의 원인 가운데 3%를 차지한다. 조기 사정(조루), 지연 사정(지루), 당뇨병이나 전립선 또는 방광 수술로 생길 수 있는 역행성 사정 이외에 속한다. 발기부전도 포함되는데, 그 원인에 따라 중추신경에 장애가 있는 경우, 척수가 손상된 경우,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긴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때로는 약물로 인해 발기부전이 나타날 수도 있다.

정관에 문제가 있을 때 출생할 때부터 정관이 아예 없거나, 정관절제술 또는 탈장 치료 등을 하면서 수술로 막힌 경우, 클라미디아 등에 감염되었거나 오토바이 교통사고 등으로 골반 골절이 일어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남성 불임 원인의 1~2%를 차지한다.

화합·공존·통합의 시대를 열어가는 한민족신문!

『한민족신문』이 화합과 공존, 통합의 기발을 들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한민족신문』은 5년여간 독자들의 검증을 받으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와 빛나는 전통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의 생활상과 경제, 문화, 스포츠 등 다방면에 대해 집중 보도, 논평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체류 외국인 100만명 시대에 걸맞게 국내법과 출입국관리법 홍보에도 앞장서며 다문화 사회통합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신문』은 앞으로도 해외에 거주하는 700만 동포와 국내에 체류하는 50여만 동포들을 포함한 한민족 독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비평을 달갑게 받으면서 성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민족신문』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국가발전과 번영 그리고 한민족의 화합과 타민족과의 공존을 통해 사회통합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데 모든 사심 없는 열정을 바치는 『한민족신문』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민족신문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701-1번지 1층

전화 : 02-2637-0814

팩스 : 02-2676-6866